

Seoul and Gyeonggi Area ■

서울·경기 국가수호사적지

조사성과 및 보존·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6

조사성과 및

보존·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서울·경기 국가수호사적지

1) 조사성과

(1) 서울지역

서울지역 국가수호사적지는 총 60곳이 조사되었다. 조사된 사적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 조사 결과〉

| 지역 | 건수 | 지역 | 건수 |
|------|----|------|----|
| 강남구 | 2 | 서초구 | 0 |
| 강동구 | 1 | 성동구 | 0 |
| 강북구 | 1 | 성북구 | 4 |
| 강서구 | 3 | 송파구 | 0 |
| 관악구 | 0 | 마포구 | 1 |
| 광진구 | 0 | 양천구 | 0 |
| 구로구 | 1 | 영등포구 | 6 |
| 금천구 | 1 | 용산구 | 10 |
| 노원구 | 1 | 은평구 | 1 |
| 도봉구 | 1 | 종로구 | 9 |
| 동대문구 | 1 | 중구 | 10 |
| 동작구 | 3 | 중랑구 | 0 |
| 서대문구 | 4 | 계 | 60 |

지역별 조사지 분포를 살펴보면 서대문, 종로·중구, 용산 등 서울 중심부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등포·강서 권역과 강북·도봉·노원·성북 권역 또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중심부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만큼 정부 부처나 군 관계 시설의 대부분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사적지가 조사되었다. 종로·중구 권역은 중앙청, 경무대 등 정부 관련 시설과 첩보부대 등 특수부대 관련 시설이 많았다. 용산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부터 군 관련 시설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국방부나 육군본부 같은 군 관련 시설이 다수 조사되었다. 서대문의 경우에는 한강을 도하한 해병대가 서울 수복을 위한 전투를 치른 곳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서울과 지방 간을 이어주는 철도나 도로망의 분포를 살펴보면 조사된 사적지의 분포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서울-지방 간 철도는 경의선과 경부선, 경원선, 경인선 등을 들 수 있다. 도로는 크게 수원-서울-개성의 1번 국도, 이천-서울-포천의 3번 국도를 기본으로 하여 서울-인천 간 46번 국도, 서울-김포 간 48번 국도, 서울-남양주 간 6번 국도, 서울-과천 간 47번 국도 등으로 크게 이루어져 있다. 이들 철도와 도로는 전쟁 당시에도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군이나 북한군은 철도나 도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전투를 치렀다. 이에 서울-수원, 서울-인천, 서울-김포 간 도로와 경부선, 경인선이 지나는 영등포·강서 권역이 여러 건 조사되었으며, 북한군 서울 진입의 주공격선이었던 서울-의정부-포천 간 3번 국도 주변의 강북·도봉·노원·성북 권역도 여러 건 조사가 이루어졌다.

● 종류별 조사 결과

거리 : 5건, 건물 : 29건, 산야 : 15건, 가옥 : 2건, 기타 : 9건

종류별로 살펴보면 건물과 산야가 전체 조사 사적지 중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정부나 군과 관계된 주요 시설이 밀집해 있었다. 이에 건물에 대한 비중이 약 50%를 차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산야는 전투지와 관련된 곳이 많았다. 수도 진입 방어선과 한강방어선, 서울수복작전 등과 관련된 전투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2) 경기지역

경기지역은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경기도 전 지역을 조사하였으며, 총 76곳이 조사되었다. 조사된 사적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지역별 조사 결과

〈지역별 조사 결과〉

| 지역 | 건수 | 지역 | 건수 |
|------|----|-------|----|
| 고양시 | 2 | 양주시 | 1 |
| 과천시 | 1 | 오산시 | 2 |
| 광명시 | 0 | 용인시 | 3 |
| 광주시 | 2 | 의왕시 | 1 |
| 구리시 | 0 | 의정부시 | 2 |
| 군포시 | 1 | 이천시 | 1 |
| 김포시 | 3 | 파주시 | 7 |
| 남양주시 | 0 | 평택시 | 3 |
| 동두천시 | 3 | 포천시 | 11 |
| 부천시 | 0 | 하남시 | 0 |
| 성남시 | 1 | 화성시 | 0 |
| 수원시 | 4 | 가평군 | 4 |
| 시흥시 | 0 | 양평군 | 1 |
| 안산시 | 0 | 여주군 | 1 |
| 안성시 | 0 | 연천군 | 14 |
| 안양시 | 0 | 인천광역시 | 9 |

지역별 조사지 분포를 살펴보면 자치단체별로는 연천, 포천, 파주, 인천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 지역의 경우에는 약 60%에 해당하는 41건의 사적지가 휴전선에 인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을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38도선에 걸쳐있는 이들 지역에서는 전쟁 초기 서울 진격을 막기 위한 방어전이 여러 곳에서 치러졌다. 또한 중공군 공세기나 유엔군 반격기의 전투 역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이유로 위의 지역에 조사지가 다수를 점할 수 있었다.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 주간선 도로망에 사적지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부지역

에서는 1번 국도 주변인 군포, 수원, 오산, 평택과 3번 국도 주변인 성남, 광주, 이천 지역을 제외하고는 조사 사적지의 분포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주간선 도로를 중심으로 전투가 치러졌음을 알 수 있다.

- 종류별 조사 결과

거리 : 5건, 건물 : 10건, 산야 : 48건, 기타 : 13건

종류별로 살펴보면 산야가 전체 조사 사적지 중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 지역은 북한과 직접적으로 접경하고 있는 지역으로 산야를 이용한 전투지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기타 지역으로 분류된 사적지가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하천 같은 자연 지형과 비행장 같은 종류로 분류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았기 때문이다.

2)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

(1) 사적지 보존 현황과 문제점

거의 대부분의 국가수호사적지가 그러하겠지만 서울 및 경기 지역의 국가수호사적지는 80% 이상이 전투지이다. 전투는 주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치러지기 때문에 사적지의 보존 상태는 지형지물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서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보고서의 현재상태 분류상으로는 변형된 사적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인문적 환경이 변화되었을 뿐, 지형적 환경은 상당수가 남아있다. 휴전선 근처인 경기 북부 지역은 당시 전투를 치렀던 고지들이 거의 대부분 남아있었다. 경기 남부 지역 역시 도시화가 진행된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당시 지형지물이 거의 남아있었다.

그러나 주로 서울에 분포되어있는 국가수호 관련 주요 시설은 당시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 약 50여 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이지만, 도심의 재개발 과정에서 다수가 헐려졌다. 현재 남아있는 사적지로는 미 제8군사령부(옛 서울대 문리대), 미 제5공군사령부(서울대 의과대학), 해병대사령부(한성중학교 본관) 등 몇 개 사적지에 불과하다. 이외의 사적지는 자리는 그대로 이지만 건물이 신축되거나 용도가 변경되는 등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국가수호를 위한 주요 전투지나 국가수호 관련 주요 시설물 터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거나 기념하는 등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 역시 전투지와 주요 시설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주요 전투지와 관련해서는 전망대나 기념비석이 세워져 있어 어느 정도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도라산 전망대,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 등 전방 주요 고지의 기념 시설은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인천이나 가평 등의 주요 전투지에도 기념비석이 세워져 있다.

하지만 이 이외의 주요 전투지에 대한 기념물이나 홍보 등에 대한 노력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 소요산, 마차산 등의 주요 등산로에는 약간의 안내가 되어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곳이 주요 방어전투지였음을 알리는 안내판 등이 부족하였다. 1번 국도와 3번 국도 상에 있는 과주, 연천 등의 주요 방어전투지에 대한 설명도 소략하였다. 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에도 죽미령 등의 큰 전투지를 제외하고는 그 곳이 전투지였음을 알리는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활용 역시 미약한 상태이다. 주요 시설이나 기관이 있었던 자리에는 그것을 안내해주는 표지석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었다. 또한 설치되어 있었던 곳이라 하더라도 국가수호와 관련된 내용이 서술되어있지 않거나 소략한 곳이 있었다. 미 제8군사령부 터의 경우 서울대 문리대 관련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8군 관련 내용은 한 줄 내외로 서술되어 있다. 미 제5공군사령부가 있었던 서울대 의과대학 건물에는 관련 내용을 알려주는 시설이 없었다. 중앙청 터인 경복궁 홍례문 앞이나, 휴전반대대회가 열렸던 덕수궁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군 관련 시설이 들어서있는 용산 지역 같이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사적지는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었다. 홍보되지 않는 곳을 말할 것도 없고, 기념물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행사가 끝난 후 답사지로서 한번 순례하는 정도로 활용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관련 전투를 기념하는 행사도 다수 있지만 대개 단순하게 기념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다. 역사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나 체험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했다.

(2) 사적지 활용방안

①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한 안보코스 개발

국가수호사적지는 점-선-면적인 구조로 보았을 때 주요 전투지나 시설물을 점으로 삼았을 때 선으로 연결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전투 과정에서 전진하거나 후퇴하는 등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결선은 당시 주요도로를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주요 거점을 기준으로 삼아 선으로 연결된 안보코스를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알리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국가수호 관련 주요 사적지(임진각, 전방 고지의 전망대, 보존되어있는 주요 시설물, 기념물)를 거점으로 삼고, 새로 발굴되거나 아직 활용되지 않은 사적지들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안보코스개발의 좋은 사례로 파주 DMZ 안보코스를 들 수 있다. 이 곳은 임진각 주변과 도라산 전망대에 1970년대 발견된 제3땅굴 등이 하나의 코스로 연결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전쟁의 실상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확실히 각인해주고 있다. 연천 열쇠전망대 등도 주요 전투지를 연결하는 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개발이 용이한 곳으로는 서울 지역, 인천 지역, 과천-안양-군포지역, 가평 지역 등을

들 수 있다. 서울은 전쟁 당시 주요 기관이 있었던 곳이자 3번 국도와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 및 한강방어전투가 있었던 곳이다. 쌍문-수유-미아리를 중심으로 하는 코스나, 한강 주요 나루터를 중심으로 한 한강방어선 코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 지역은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위대한 전투가 치러졌던 곳이다. 월미공원을 중심으로 하여 인천 시가를 하나의 코스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과천-안양-군포 지역은 1951년 3월 서울 재수복을 위해 유엔군은 수리산-모락산-관악산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차례로 탈환하였던 역사적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안보관광 코스로 개발할 수 있다. 또한 가평 지역은 중공군 춘계공세기 유엔군과의 전투가 치러졌던 곳으로서 가평-목동-화악산으로 이어지는 코스에 국가수호 관련 사실을 더할 수 있다.

② 사적지 안내판, 기념비의 설치 및 정비

안보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적지에 대한 홍보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관련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역사의식 및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안내판이나 기념비를 설치하거나 기존 설치된 안내판이나 기념비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발굴되지 않았던 사적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안내판이나 기념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일례로 경기 남부 지역의 평택은 지제동 전투와 평택역 오폭사고 등의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를 알리는 표지석이 없다. 특히 지제동 주위에는 전철역과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서서 등 시민들의 왕래가 잦아졌으며, 평택역은 평택의 중심지이다. 이러한 곳에 관련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전쟁 당시의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안내판이나 기념비를 설치하거나 정비할 때에도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안내판이나 기념비는 문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적지 한 곳만을 볼 것이 아니라 사적지 들을 연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인근의 국가수호사적지, 기념물 등을 지도를 통해 연결하거나, 관련 사건을 그림이나 지도로 보여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국가수호사적지가 아니더라도 해당 자치단체 내의 유적들과 연계할 수 지도나 자료 등을 첨부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③ 역사문화지도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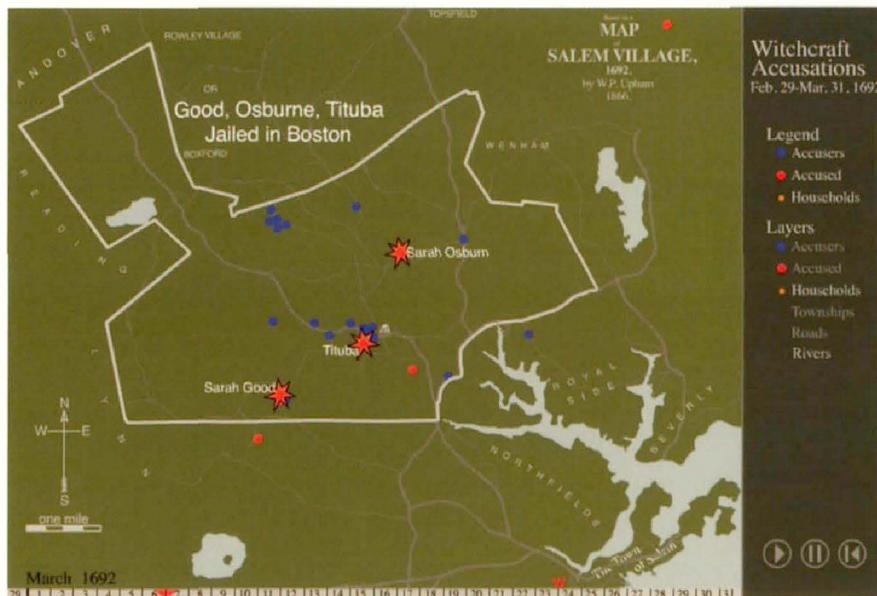
이번 조사는 시간적인 의미도 가지지만 동시에 공간적인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 시간적인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공간적인 역사사적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치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 당시 GPS를 활용하여 정확한 지점을 찍고, 이를 통하여 평면도에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면 기초적인 사적지 지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좀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지도를 만든다면 플래시나 애니메이션 기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일반적인 평면 지도에 작성할 때에 희미해지는 역사적 사실의 흐름, 즉 시간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 홈페이지는 우리에게 그 활용 사례를 제공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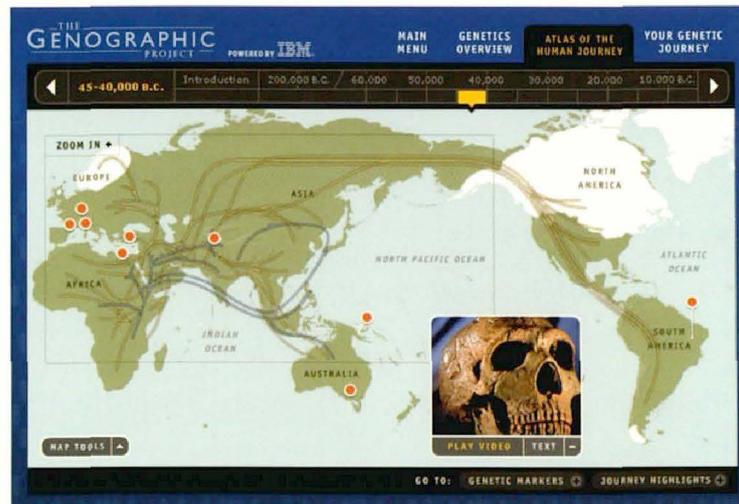
- 애니메이션 맵 서비스 : 1692년 3월, 미국 매사추세츠 주 세일럼에서 있었던 마녀 사냥 발생지를 소재로 한 지도

주소 : <http://jefferson.village.virginia.edu/%7Ebc/salem/salem.html>



- 지도 기반의 콘텐츠 서비스: 지도 위에 전쟁 관련 이미지와 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

주소 : <http://www3.nationalgeographic.com/genographic/atlas.html>



④ 기억의 보전을 통한 새로운 연구 시도

이 땅에 남과 북이 총을 겨둔지도 벌써 50여 년이 지났다. 이에 전쟁과 관련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당시 지역에 살았던 주민이나 그 후손들을 중심으로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그에 대한 증언 채록사업은 관련 유공자나 후손들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지역주민의 기억과 증언에 대한 조사는 다소 미흡했다. 그들의 기억과 증언은 사료와 더불어 관련 사적지에 대한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는 이나 구전을 통해서 관련 사건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이들이 사라지기 전에 그들의 증언과 기억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적지와 관련된 당대의 사진 자료 뿐만 아니라 후대의 사진자료도 수집하여 사적지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전쟁에 대한 새로운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전투사 중심의 전쟁사 서술과 더불어 전쟁 당시 생활사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쟁 시기 전투 이외의 연구로는 양민학살 등과 관련된 연구가 거의 대

부분이고, 그 자체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전쟁 당시 참상이나 지역 주민과 국군, 유엔군의 연대 등의 연구를 통해 당대를 복원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